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6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가 채택됐다. 북한의 돈줄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만 생명줄은 건드리지 않았다.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수출의 전면 금지를 명시했다. 북한의 교역 총액만 놓고 보면 외화 수익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광물 수출은 약 7억 5천만 달러였다. 수산물 수출은 3억 달러 정도였다. 둘을 합치면 10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총액 30억 달러를 감안하면 약 3분의 1의 외화 수익이 감소되는 셈이다. 2371호에는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을 명시하지 않았다. 원유는 북한의 생명줄이다. 북한 산업의 전력용이고, 군대의 훈련용이며, 주민들의 운송수단용인 원유 문제를 그대로 둔 것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

은 2371호의 실효성이 출발에서부터 반감됨을 보여 준다.

2371호의 채택 과정은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기간이 짧았다. 과거 결의안 채택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이번 결의안은 33일 걸렸다. 둘째, 만장일치 채택이다. 이전에는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투표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투표 과정이 없었다. 이런 특징은 미중 간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중국은 광물 수출 전면 금지를 포함한 돈줄 차단을 미국에 주었고 미국은 원유 지원 중단 제외라는 생명줄을 중국에 주었다.

지난 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장성명 채택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지지를 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도 지지를 표했다. 이윤호 북한 외무상은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심히憂國하는 미국과 몇몇 주중국들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올해 ARF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본회의 개최 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둘째, 의장성명은 보통 폐막 후 며칠 걸리는데 이번 성명은 폐막 후 곧장 발표했다. 셋째, 이전에는 의장성명에 북한의 입장이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번 ARF의 장내외에서 철저히 소외됐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김정은의 암살에서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과 ARF 의장성명 채택 후 북미 간에 주고받는 '말 폭탄'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말폭탄은 북한 정부 성명에서 시작해서 외곽 기구들의 물아치기 식 지지 성명으로 이어졌다. 심지어는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군중대회도 개최됐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의 '전면 비핵'을 선언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서울 불바다'를 들고 나왔다. 총참모부는 미국의 분별없는 '전쟁 불사' 광풍은 아메리카제국의 비극적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략사령관은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화염에 휩싸이는 분노 운운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빈말이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메모지에 적힌 것을 그대로 읽었다. 사전 준비된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북핵 불용, 도발 불용,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3대 추진 원칙을 가진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3대 추진 전략도 가진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보다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ICBM도발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좋지 않을 때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는 미국과 중국이고 남과 북은 이방인으로 귀결됨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도적 역할론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전력이 담겨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주변국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아니라 한국화로 이끌기 위해 남북 간 물밑 접촉을 비롯한 더 많은 대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변 찬 석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정사목

치유의 성사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회고록의 내용 중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실마저도 부정하려는 시도를 계속 당해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없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줄 힌츠페터와 같은 이들이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꿈꾸며 자신의 삶을 바친 많은 희생자들과 그들을 잃고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을 포함한 광주 시민들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가톨릭 교회에도 치유의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성사가 있다. 고해성사는 회화의 성사 혹은 용서의 성사이다. 즉 참된 회화와 용서를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적 약점과 죄에 빠지기 쉬운 성향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새 생명을 화해할 자리가 필요하고 그 자리가 바로 고해 성사이다. 가톨릭 교회 고리서는 고해성사가 세 요소, 곧 참회의 마음과 고백의 말과 보속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회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참회(懺悔)이다. 참회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단 한번의 참회로 자신의 잘못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참회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즉 회해를 위해서는 자신의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회화의 핵심인 고백(告白)이다. 진정한 참회 없이 고백할 수 없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 없이 올바르게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고백은 말 그대로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법적으로 말하면 고백하는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죄를 지었으니 피고이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니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은 보속(補贖)이다. 죄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이를 갚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참회한 사람은 당연히 보상과 속죄 곧 보속에 나선다. 참회하고 고백한 뒤 이루어지는 성실한 보속 행위는 단순히 보상이나 속죄를 넘어서는 사랑의 행위이다.

치유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광주 민주화운동은 아직 첫 번째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된 사람들의 진실된 참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고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 받을 사람이 없었다. 영화 '말양'에서 아들을 유괴해 죽인 사람을 용서하러 갔지만, 그 살인자는 자신은 이미 용서를 받았노라고 이야기한다. 용서해줄 마음을 어렵게 가져갔지만, 불행히도 그 용서를 받을 사람은 그 곳에 없었던 것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있어야 할 과거가 아니라 치유해야 할 현재로 남아있다. 우리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치유를 위해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그 잘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 고



안 봉 일
완도군 관광정책과장

완도에 가면 신나는 일이 생길 거야

된 소안도와 생일도, 고산 운선도의 숨결이 서린 보길도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유명한 섬과 해변들이 산재해 있다.

충북·경기 지역의 수해 피해로 피서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완도는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해수욕장의 천국이요, 전국 최고의 하계휴양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지난해에는 완도읍 해변 공원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컨테이너형 상가를 조성하고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바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무더운 날씨와 틀에 박힌 상가 운영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도 토요일 상상콘서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말마다 문화공연 위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로 했다. 공연도 그냥 공연이 아니라 끼와 흥이 함께하는, 지역민과 관광객, 공연자가 함께 즐기고, 느끼는 흥겨운 난장으로 꾸었다. 연인끼리 나와도 좋고, 가족끼리 또는

친한 친구끼리 나와도 좋다. 공연의 클라이막스엔 모든 관중이 흥겨운 댄스 타임을 즐긴다. 파전에 막걸리 한 잔하고 막춤을 추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박장대소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된다.

지역 특산품으로 진행되는 경품 이벤트도 관심거리다. 완도의 최고급 속소인 원레스 리조트와 신지 해변 리조트, 해조류스파랜드 등은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 운이 좋으면 최고급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광어회 무료 시식, 천연 전복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여기서 그치지라. 콘서트의 마지막엔 한 사람을 추천하여 무료 숙박권과 특산품 등 80만원 상당의 대박 경품권을 증정한다. 콘서트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관광 온 주부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나면 출출해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해변공원 주변에는 맛집들이 즐비하다. 최고

급 횡집부터 치맥, 중국 음식점까지 입맛대로 즐기면 된다.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완도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상할인 쿠폰제를 도입했다. 완도읍내 횡집, 음식점, 해조류·전복판매업소 등 62개 상가나 특산품점,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10~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콘서트에 참가한 다음 할인쿠폰을 갖고 62개 업소를 방문하면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과 특산물을 즐기고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저렴하게 구입해 좋고, 업소에서는 비수기에 소득을 올려서 좋다. 최근 콘서트에 참여했던 한 관광객은 "흥겨움과 재미가 더해진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피서철 완도군에서는 읍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주 토요일 오후 운영하는 '토요일 상상콘서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 가족 휴가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莞島)에서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社 說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직도 요원하다니

한전 본사가 빛가람도시로 이전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작게는 악취 민원부터 크게는 종합병원 신설 문제까지 많은 문제가 널려 있지만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그동안 악취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호혜원 양돈농가에서 축산을 포기(2015년 12월)한 이후에도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호혜원 양돈 농가 외에도 많은 악취 발생 사업장에서 퇴비 등을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올해 말까지 지역 축산 농가 및 악취 발생 사업장 1606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등 악취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악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고민거리다. 1만2452명(2015년)이던 혁신도시 내 인구가 2만6287명(2017년 4월)으로 급증

했지만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1%가 정주여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도 부족한 의료보건의료(27.4%) 때문이었다.

나주 지역 고교 경쟁력 강화 역시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나주시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혁신도시 내 명문고 설립은 부영을 비롯해 몇 군데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섰다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혁신도시를 지방에 조성한 까닭은 수도권으로 물리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일지리를 늘려 지역 인재의 취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애초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문화·교육·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어린이집 특혜 구의원 비위 맞추기 아닌가

광주시 서구청과 북구청이 구청 직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구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다. 해당 구청들은 구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라는 직원과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감사대상 기관이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 제공이며 의원들 비위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 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는 9월 농성동에 서구청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인데 운영 규정에 구의원을 직원으로 규정, 보육대상으로 그들의 자녀를 포함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구청)소속 직원은 서구의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서구의원으로서, 보육 대상은 소속 직원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청 측은 어린이집 운영 규정이 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훈령이어서, 구의원이 보육 대상 범위에 들어간 것

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구청은 이미 지난해 구청 어린이집 개원 시 구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남구청 및 순천시 등 대다수 광역·기초단체들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 당시 '공무원법상 소속 직원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지칭하는 게 통용이라고 판단, 광역·기초의원들을 직원 범위에서 빼 구청어린이집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 또한 누가 보더라도 구의원은 구청 소속 직원이 아니며 지방의회에 속한 독립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주민 이익에 봉사하고, 구청 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서구의원으로 서, 보육 대상은 소속 직원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청 측은 어린이집 운영 규정이 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훈령이어서, 구의원이 보육 대상 범위에 들어간 것

無 等 鼓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의 이적 이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은 스페인 FC바르셀로나에 이적료 2950억 원을 주고 그를 영입했다. 5년간 지급할 연봉 3000억 원을 합하면 총 6천억 원 수준. 몸값을 오만 원권으로 쌀으면 무등산(1187m)보다 100m 이상 높다. 선수 한 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것이 시장 논리인지 거품인지는 앞으로의 활약에 따라 두고두고 화제가 되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

축구에서 '완전한 숫자'이자 팀 '에이스'의 상징이 됐다. 펠레 이후 마라도나, 플라티니, 지단, 마테우스, 호나우두 등도 모두 10번을 달고 축구의 전설이 되었다.

한국 대표팀에서 10번은 영원한 숙제다. 영광스러운 10번이 만큼 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마땅한 선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2 월드컵에서는 수비수 이영표가 달았다. 축구 천재라 불리던 박주영은 끝내 번호가 주는 무게감을 이겨 내지 못하고 대표팀에서 탈락했다. 대신 등번호

10번

7번의 박지성과 손흥민이 에이스 역할을 했다. 10번이 펠레의 번

호라면 7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번호. 맨유에는 베스트, 칸도나, 베켄, 호날두로 이어진 7번이 항상 팀의 중심이었다. 박지성은 맨유에서는 13번이었지만 대표팀에서는 7번을 달았다.

대한축구협회가 14일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전과 우즈베크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월드컵 9회 연속 진출을 결정할 중요한 경기다. 7번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해 합류할지, 새로운 에이스 10번이 탄생할지, 신타용 감독의 선택이 주목된다.

/유재만 편집부 부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